

## 우울증을 수반한 유지 혈액투석치료 환자에서 항우울제 치료에 따른 우울증상 및 영양지표의 변화

고신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<sup>1</sup>, 국군부산병원<sup>2</sup>

한병호<sup>1</sup> · 정연순<sup>1</sup> · 박시성<sup>1</sup> · 민은정<sup>1</sup> · 엄은아<sup>1</sup> · 신호식<sup>2</sup> · 임 학<sup>1</sup>

### Changes of Depressive Symptoms and Nutritional Indices after Antidepressant Treatment in the Patients with Chronic Hemodialysis and Depression

Byoung-Ho Han<sup>1</sup>, Yeon Soon Jung<sup>1</sup>, Si-Sung Park<sup>1</sup>, Eun-Jeong Min<sup>1</sup>, Eun-A Eum<sup>1</sup>, Ho Sik Shin<sup>2</sup>, Hark Rim<sup>1</sup>

Kosin University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<sup>1</sup>, Department of Neuropsychiatry, Busan Armed Forces Hospital<sup>2</sup>

**목 적** : 유지 혈액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만성신부전 환자에서 수반되는 우울증과 우울증상의 특성 및 정도를 조사하고, 항우울제 치료 전후의 우울증상 및 영양지표의 변화를 측정하여, 우울증과 우울증상의 치료가 유지 혈액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만성신부전 환자에게 미치는 임상적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.

**방 법** :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인공신장실에서 6개월 이상동안 유지 혈액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만성신부전 환자 65명을 대상으로 우울증 및 우울정도와 영양상태 지표들을 조사하였다. 주요우울증의 진단은 반구조화된 면담을 통하여 DSM-IV TR 기준을 사용하였다. 우울증상의 정도는 17문항의 Hamilton Rating Scale for Depression (HRSD)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. Subjective global assessment (SGA), body mass index (BMI), triceps skin fold thickness (TSF), mid-arm muscle circumference (MAMC)와 handgrip strength를 측정하였으며 KT/V, normalized protein catabolic rate (nPCR), 혈청 알부민 농도 등과 같은 영양지표도 측정하였다. 항우울제 치료를 받은 대상군의 경우 치료 전 및 8주간의 치료 이후 2회에 걸쳐 상기 항목을 평가하였다.

**결 과** : 만성신부전으로 유지 혈액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 중 주요 우울장애로 진단된 환자는 약 42%였다. 우울증을 수반한 이들 환자에서 8주간의 항우울제 약물치료 후 우울한 기분, 죄책감, 자살사고나 정신적 불안이 개선되었으며, 특히 초기불면, 수면유지 장애, 조기각성 등의 수면장애와 활동 및 기력, 전반적인 신체증상 등이 호전되었다. 항우울제 치료 후 TSF ( $p < 0.05$ ), Handgrip strength ( $p < 0.01$ )와 hematocrit ( $p < 0.05$ )이 개선되었다.

**결 론** : 만성신부전 환자에서 우울증이 수반될 경우 우울증상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는 우울증상의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며, 신체기능의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적극적 치료가 필요하다.